

9월30일 월요일

스가랴 5장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속의 여인 환상

본장에는 여섯 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일곱 번째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에 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날개 달린 두 여인이 악이 담긴 에바(곡물 측량 바구니)를 어디로 옮긴다고 하였나요?

*이 여인은 잠언이 말하는 음녀이며,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17~18장에 나오는 음녀들의 어머니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죄가 있어야 할 곳은 유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죄악의 도성 바벨론입니다. 죄가 있어야 할 곳은 유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집이 아니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머무는 악을 단번에 멀리 옮기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6장 네 병거와 네 말들 환상

본장에는 여덟 번째 환상으로 네 병거와 네 말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병거에서 나가는 네 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요한계시록 6장과 연관지어 볼 때, 붉은색은 살육과 전쟁, 대량 학살, 검은색은 슬픔과 사망, 흰색은 승리, 얼룩무늬는 각종 전염병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북쪽은 바벨론을, 남쪽은 애굽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인 바벨론의 심판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7장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본장은 지난 포로생활 이후로 지속되던 5월의 금식을 계속 지켜야 하느냐에 대한 백성의 질문과 선지자의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형식적인 금식 보다는 오히려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나타내며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와 ()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8장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본장은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불릴 것이다. ()절 2) 예루살렘 거리에 남녀노소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절 3)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하늘은 이슬을 내려 남은 백성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절

10월1일 화요일

9장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본장에서 스가랴는 왕이신 메시아, 예수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데, 그 왕은 힘이 아니라, 고난과 겸손을 통해 승리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하는 것처럼 칼과 무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보여줍니다. "시온아 딸아, 그대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로우시며, ()을 베푸시며, ()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니라."

10장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본장은 9장에 이어, 메시아의 축복된 통치로 인해 이스라엘에 임할 은혜와 축복을 기록합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헛된 우상이나 거짓 선지자에게 나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권면을 받습니다.(2절)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고난의 바다를 지나게 하고, 바다 물결의 고통을 겪게 하시겠지만(11절), 결국에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1장 선한 목자와 어리석은 목자

본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메시아를 상징하는 선한 목자의 역할을 예표적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고(4절), 이후에 어리석은 목자의 역할을 할 것을 요구 받습니다(15-17절). 본장 12-13절은 선한목자이신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27:3-10절을 함께 읽어 보세요. 1) 예수님은 가롯유다에 의해 열매에 넘겨졌나요? 2) 이후 가롯유다가 다시 가지고 온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떻게 사용하였나요?

12장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본장 10절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무엇을 주어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나요?

10월2일 수요일

13장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12장에 이어 선지자는 계속해서 선한 목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예언합니다.(7-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목자, 내 짝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목자를 치는 일이 일어나면 양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마태복음 26:31)."라고 인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2/3가 멸망당하나, 나머지 1/3은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하며, 금같이 () 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 하리라."

14장 여호와와 날이 이르리라

본장은 역사 속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여호와와 날이 이르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광경을 보여줍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평화의 날이지만(9-11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욕하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12-15절). 여호와와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매몰되다가,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처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현실이 비록 낙심할 것으로 가득하지만,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소망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3일 목요일

말라기 1장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

말라기서는 오랜 기다림에 지쳐 메시아의 소망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섭섭하고 상한 감정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도 없고 사랑이 식었습니다. 예배가 형식화된 것은, 무엇보다 제사장들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는 그들의 책임을 먼저 묻고 있습니다(1:6-2:9). 그들의 제사 의식에서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성의 없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현재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나요?

2장 옳은 길에서 떠난 제사장들

본장에서 선지자는 계속해서 제사장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1-9).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고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살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10-16) 사역을 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면, 하나님은 어떤 댓가를 치르게 하시나요?

3장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라.

본장에서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라고 권면합니다.(7-12절) 그리고 13-15절에서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16-18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이름을 어디에 기록하신다고 하나요?

4장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본장에서 선지자는 용광로 불 같은 날, 곧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니, 하나님의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4절)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하나요?

*이 선지자는 말라기 이후, 약 400년간의 침묵 후에 등장하는 침례요한을 의미합니다.

10월4일 금요일

마태복음 1장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마태복음 1장의 기록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성령에 의한 탄생입니다. 특별히 이 계시에서 주님의 두 이름이 소개됩니다. ()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분임(21절)을, ()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23절)이라는 주님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연결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2장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라고 묻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미가서 5:2절을 인용하여 대답했습니다. "또 유대 땅 ()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성경에 대해 많은 것을 공부하고 알고 가르치지만, 성경 안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며 삶속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3장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본장은, 성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 1) 성자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을 때,
2) 하늘이 열리고 ()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3) 성부 ()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 하셨습니다(16~17).

4장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본장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는데, 이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 1) 20절: 그들이 곧 () 예수를 따르니라.
2) 22절: 그들이 곧 () 예수를 따르니라

10월5일 토요일

5장 복이 있는 사람

5-7장은 산상수훈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특히 팔복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성취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8가지 복있는 사람(1-12절)을 천천히 읽어 보세요.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본장에는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은밀하게 해야 할 것 3가지가 무엇인가요?
1) 2-4절:
2) 5-15절:
3) 16-18절:

7장 말씀을 듣고 행하라.

5장에서 시작된 산상수훈은 7장에서 마무리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서 행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십니다(24-27).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이나,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장 1절-23절을 읽으시면서, 내가 행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8장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1절) 본장은 특별히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사역들이 나옵니다. (나병환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귀신들린 두 사람 등) 이런 사역들을 통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17절).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 53:4절을 써 보세요.